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3/31~2025/04/06]

2025.04.07

## [로봇] 중국 로봇 경쟁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 삼성전자 출신 고위 인력들 로봇 전문 기업에 속속 이직 중
- 정의선 회장, 미국 생산 거점에 스팟과 아틀라스 수만대 투입 예정
- 유니트리, 이제는 20자유도 손까지 공개. 94개 촉각 센서도 탑재

## [방산] 들쭉이는 수주

- 다시 한 번 들쭉이는 K-9 수주. 인도는 나왔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도 추가 구매 계획
- 방사청장 유럽 순방. 주요 수출국 방문해 협력 논의
- 미국이 방산 수출 강화에 나설 예정. 수출 확대 위한 행정명령 발동 예정

## [항공] 25년 하계 스케줄 확정

- 25년 하계 스케줄 공개. 운항횟수 코로나 전 수준 넘어
- 미국 관세 폭탄. 항공 화물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확대
- 티웨이항공, 소노 주도 이사회 개편 불발. 5월 임시주총으로 이연

## [조선] 긍정적인 시그널

- 현대삼호와 한화오션의 LNGC, 탱커 수주 낭보. 추가 파이프라인도 견고
- 중국 조선소 발주 취소 잇달아. 그리스 캐피탈도 중국 대신 한국에 컨선 20척 발주 전향
- 미국 군함 MRO 무한경쟁 시작. 일감 감소 우려 vs MRO 물량 확대의 엇갈린 시각



Weekly Keyword

**중국 로봇 경쟁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로봇 산업 경쟁력에 뒤처지면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는 중. 중국의 경쟁력은 막대한 투자 아래 기술 발전과 내재화를 통한 공급망 독립 및 가격 경쟁력 확보임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7)

[중국 로봇 경쟁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 미국(Semianalysis)과 유럽(IFR)에서 중국 로봇 기술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확대되는 중. 중국의 로봇 산업이 무서운 이유는 첫번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참고로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NDRC)는 향후 20년간 약 1조위안(1,000조원) 규모의 국가 지원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두번째는 공급망의 자립임. 모터를 비롯 핵심 부품들의 중국 내재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미국의 기술/공급망 견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 첨단 로봇 분야의 기술 경쟁이 미국과 중국 2파전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 부품의 대체재로서 기회 모색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Key Chart: 5kg Cobot BOM(USA vs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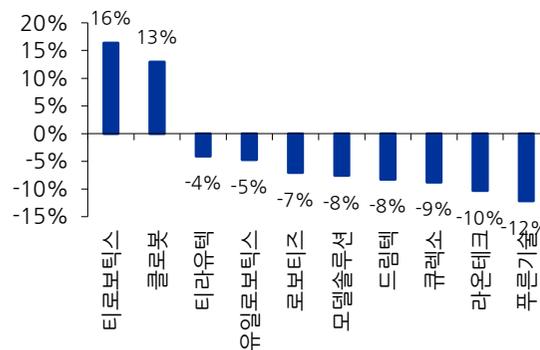
Componet	Qty	ASP(USA)	Total(USA)	ASP(China)	Total(China)
<b>Structural Components</b>					
Arm Segement	6	500	3,000	250	1,500
Base	1	40	40	10	10
Cable Management	1	300	300	200	200
<b>Motors and Actuators</b>					
Servo Motors	6	500	3,000	350	2,100
Absolute Encoders	6	70	420	30	180
<b>Control Systems</b>					
Embedded Compute Module	1	700	700	700	700
Cooling Fans	1	450	450	125	125
Servo Drives	6	200	1,200	60	360
PCB+Misc Electronics	1	130	130	60	60
IMUs	6	40	240	40	240
<b>Vision and Positioning</b>					
Depth Camera	1	400	400	400	400
<b>End-Effector and Power</b>					
Electric Gripper Standard	1	13,500	13,500	4,500	4,500
PSU	1	240	240	180	180
UPS	1	800	800	600	600
<b>Total</b>			<b>24,420</b>		<b>11,155</b>

자료: Semianalysis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3/31~04/06)

[산업용 로봇]

■ DN솔루션즈, 로봇기업 뉴로메카와 파트너십

[서비스 로봇]

- 그랜드코리아레저-로보티즈, 카지노 맞춤형 로봇 협력
- 로보티즈-엑스와이지, 피지컬 AI 기반 리테일 로봇 개발
- 큐렉소, "일본 진출 첫해 10대 이상 팔릴 것"

[기타(정책/부품/SW)]

- 정의선, 보스턴다이내믹스 방문 "로봇 수만대 배치 계획"
- 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소 설립 추진. 로봇산업협회 협력
- 에브리봇, 삼성전자 출신 신임 연구소장 영입
- 삼성, 1분기 중 특허 1,933건 승인. 로봇 IP 다수 확보
- L&G이노텍-카이스트, 반도체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 협력
- 산업부, 독일스위스와 로봇-반도체 산업기술 협력 강화
- SK온, 유일로보틱스 최대주주 콜옵션

[Global]

- 구글 "30년까지 AGI 등장". 재귀적 개선 주목
- 어질리티로보틱스, 4억달러 유치. 기업가치 17.5억달러
- 어질리티로보틱스, 디지털 활용 효율 극대화 혁신 발표
- 美 세프 로보틱스, AI 식품조립 로봇으로 635억원 유치
- 中 유니트리, '한 손에 94개' 촉각 센서 탑재 핸드 발표
- BYD, 1,000만원대 휴머노이드 보요보드 공개
- 中 키논, 첫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X맨-R1' 발표
- 中 여우이봇-시안자오통대, 산업용 휴머노이드 발표
- 유니트리, 라이브 방송서 '로봇개' 5분 만에 2억원 완판
- 中 동평리우치, 유비텍 휴머노이드 로봇 20대 배치



## Weekly Keyword

**들썩이는 수주**

유럽 발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 후 쉬어가는 구간. 이제 필요한 것은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주'임. 다행히도 신규 발주 소식이 하나 둘 들리기 시작. 인도를 시작 동/북유럽 연내 수주 기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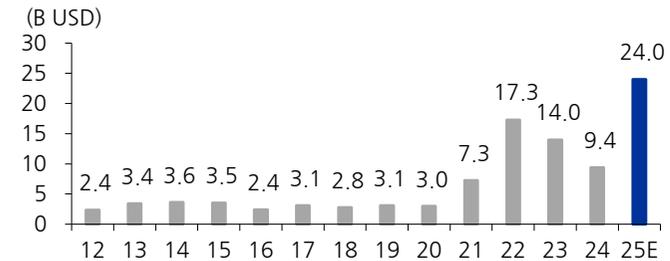


##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25)

### [들썩이는 수주]

■ 연초 유럽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주가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갈증 커지는 중. 다행히 수주 움직임 본격화되기 시작했음. 지난 주 인도 K-9 구성품 수주가 있었고, 한국의 기존 고객인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에서 K-9을 추가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짐. 필리핀 전투기 사업에서 F-16V 잠정 수출 승인으로 KF-21 탈락 우려도 있으나, 이제 막 수주전이 열렸을 뿐. 오히려 미국 훈련기 사업의 타임라인 앞당겨지고, 이집트 FA-50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전투기 사업도 순조로움. 전차 분야에서 폴란드 K-2 2차 계약 체결이 시장 기대 대비 늦어지고 있지만, 현지 생산 관련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2차 계약에서 현지 생산 체제 확립되면, 2차 이후 640대에 대한 발주 확도도 높아지는 것. 폴란드가 선제적으로 슬로바키아 등 마케팅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

## Key Chart: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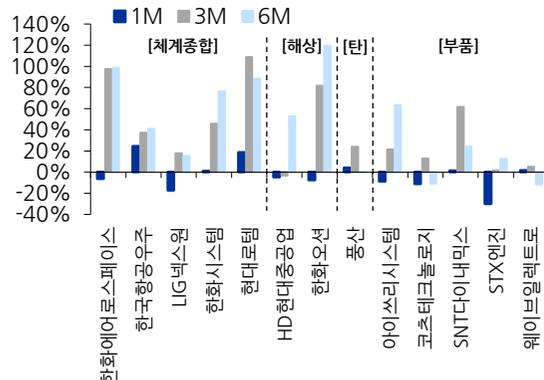


자료: 방사청

##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 방산 주요 뉴스(03/31~04/06)

###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인도 K9 자주포 3,700억 규모 수출
- 노르웨이 K9 24대 추가 도입 계획
- 이라크 軍 대표, 한화에어로. K9-천무 도입 관심
- 美 국무부, 필리핀에 F-16 20대 잠정 판매 승인
-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 앞당겨 추진
- 빅텍, 한화시스템과 164억 폴란드 K-2 2차 사업 계약 체결
-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와 2,500억원 K21 사업 계약

### [기업별 이슈]

- 한화, 美 GA와 단거리무인기 개발. 무인기 사업 진출
- 김승연 한화 회장, (주)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게 증여
- KAI, 신규 격납고 준공. KF-21 항공기 최대 2대 격납 가능
- LIG넥스원, 美 방산기업 안두릴과 맞손
- 대한항공, 美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 개발 협력

### [기타]

- 방사청장, 스웨덴/루마니아/노르웨이 찾아 방산협력 논의
-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동으로 일부 순환 배치

### [글로벌]

- 로이터 "트럼프, 곧 무기 수출 한도 늘리는 행정명령 발표"
- 덴마크, 프랑스 미사일 대거 구매, 핀란드 장갑차 도입
- 폴란드, 보르속 생산 확대 추진. 1,400대 도입 속도
- 폴란드, 미국과 20억달러 패트리엇 방공 계약
- 콜롬비아 사브 그리펜 24대 도입 추진
- 노르웨이 국방펀드, 방산 네거티브 스크리닝 폐지 검토
- 일본 방위상, 이탈리아와 GCAP 논의. 사우디도 참여 전망

#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 Weekly Keyword

### 25년 하계 스케줄 확정

3월 30일부로 동계 시즌 끝나고 하계 스케줄 진입. 주당 운항횟수는 4,783회로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로도 4% 증가한 수치. 안정적 수요 속 운항 횟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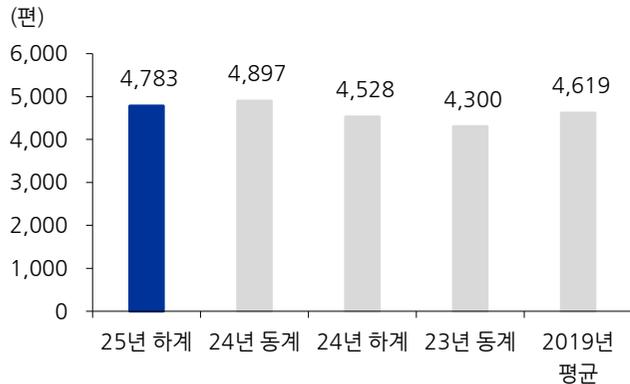


##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4)

### [25년 하계 스케줄 확정]

3월 30일부터 하계 스케줄 돌입. 국토부는 이번 하계 시즌 국제선 운항 횟수(주당)를 4,783회로 발표. 24년 동계 4,897회 대비 2% 감소했으나, 24년 하계 4,528회 대비로는 6% 증가하고, 코로나 이전 2019년 평균 4,619회 대비로도 4% 증가한 수치. 안정적인 항공 수요 속 운항 횟수는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 동계 기간 운항 중단했던 인천-취리히, 캘거리, 자그레브 등 복항하고, 인천-프라하, 런던, 알마티, 고베 신규 취항 및 증편 예정

## Key Chart: 시즌별 주당 운항 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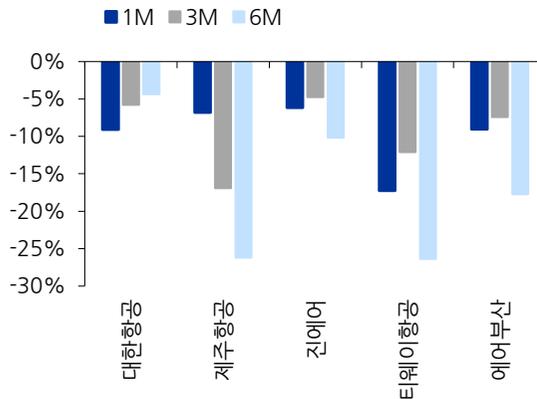


자료: 국토부, 투자증권

##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 항공 주요 뉴스(03/31~04/06)

### [여객/화물]

- 올 여름 항공 스케줄, 중국-동유럽 노선 대폭 확대
- 아시아나, 중국 노선 20% 확대. 청두-충칭 매일 운항
- 인천~체코 프라하 노선 아시아나항공 주 3회 운항
- 티웨이항공, 인천-타슈켄트 취항해 중앙아 노선 강화
- 대구~연길-울란바토르-홍콩 운항 재개. 후쿠오카 증편
- 에어서울, 日 요나고 주 5회로 증편 운항
- '관세 폭풍'에 항공화물 수요 감소 전망

###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A220 기재 40% 운항불가. 국내선 영향
- 티웨이항공, 서준혁 號 이사회 개편 불발
- 티웨이항공, 5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 티웨이, 구독형멤버십 '티웨이플러스' 재구독 이벤트 진행
-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부족으로 대한항공 전세기 투입
- 에어프레미아 1~2월 정비지연율 7.1%. 4월부터 정상 운항
- 이스타항공, 인천국제공항 '셀프 백드롭 서비스' 시작
- 애경그룹, 캐시카우 애경산업 매각. LCC 주력하나

### [글로벌]

- 에어버스 3월 항공기 인도 69대 기록. 전년비 10% 증가
- 에어버스 A350, 중화항공 10대 추가 발주
- CMA CGM, 에어 벨기에 화물사업 인수 순항
- 버진오스트레일리아, 6월에 IPO 준비 돌입
- 타이항공, 5월 경영재건 예정. 기단 2배 확대해 성장 추구
- 루프트한자, ITA 26년 스카이얼라이언스 가입 추진
- 중국 국유항공사 3사 24년 적자 축소. 국내선 호조



## Weekly Keyword

**긍정적인 시그널**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 움직임이 실제 선주들의 발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일부 선주는 중국 발주는 보류하기도하고, 한국에 발주 전환하기도. 중국 선호 기조는 여전하지만 긍정적 기류 형성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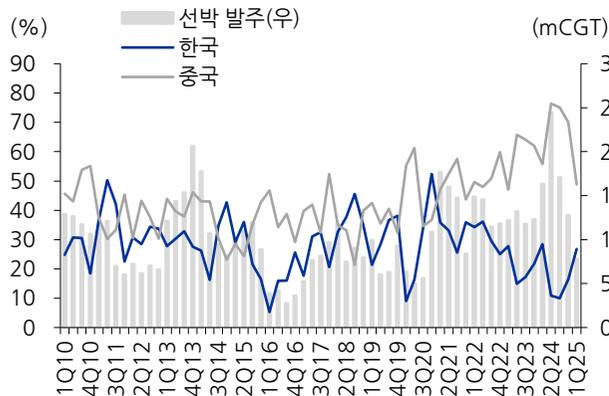


###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

#### [긍정적인 시그널]

■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 움직임 계속되는 가운데 상선 발주의 흐름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 일단 엑손모빌의 중국 조선소 향 LNGBV 2척 발주가 보류되었음. 그리스 캐피탈도 중국 조선소 선호 기조에서 변화 조짐. VLCC 2척을 한화오션에 발주했고, 컨테이너선 20척을 HD현대삼호와 HD현대대피포에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짐. 지난 USTR 공청회에서 해운사들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맹반발로 수위 조절 가능성도 있고, 상세 내용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관망하는 선주들도 많음. 선박 가격을 고려해 중국 조선소에 계속 발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조선소에 과도한 노출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한국 조선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Key Chart: 한국 vs 중국 수주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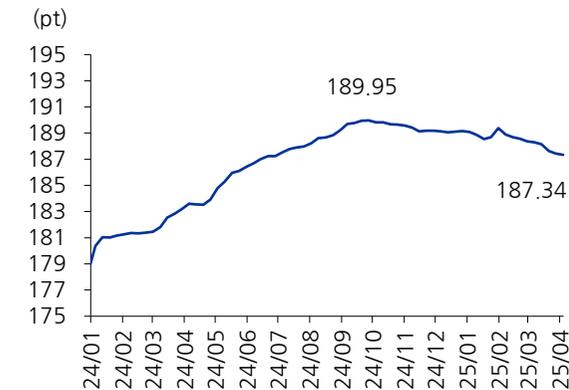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 조선 주요 뉴스(03/31~04/06)

#### [상선/해양]

- HD현대삼호, Sonagol 157K 탱커 2척 수주. 2,576억원
- 한화오션, 3,800억원 규모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수주
- HD현대삼호, LNG선 1척 수주. 2억 6,180만불 규모
- HD한국조선, 15억 5,000만불 규모 컨선 20척 수주 전망
- 한-중 중고 선박 가격 격차 확대. 트럼프 관세 효과
- 양밍, 8K/15K TEU 컨선 10척 수주전. 한/일/대 경쟁

#### [특수선]

- 미 군함 MRO MSRA 없이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3,200t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 HD현대중 5개월 조기 인도
- HD현대중공업, 말레이시아 MRSS 수주 유력
- 한화오션, 폴란드 협력 조선소 방문
- HD현대중, "美 군함시장 열면 연 매출 5조 가능"
- HD현대중, 美 MRO 수주 결과 내달 예상

#### [기타]

- 美 중국산 선박 압박. 中 사업장 보유 조선사 불동 우려
- HD한국조선, 수빅조선소 설비 개선. 탱커 연 4척 인도 계획
- 대한조선, 3분기 중 코스피 시장 입성 목표
- HD현대, 美 안두릴과 'AI 무인함정' 개발 협력

#### [글로벌]

- 엑손모빌, 中 조선소 LNGBV 2척 발주 '보류'
- 대중국 선박 입학세. 美선 반대의견 쏟아져
- 양밍 "中 조선, 의도적 배제 안해. 선가납기가 선행조건"
- 일본 MOL, 中 조선에 암모니아 추진선박 9척 발주
- 중국, 자국 선박 기피 가능성에 가격 경쟁력 강화